

“5·18 진실 고백이 화해와 용서의 시작”



총리와 여야 모두 주먹 불끈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부겸 총리와 여야 당대표들이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시진기자단

41주년 기념식, 여야 지도부·유공자 등 99명 참석 김부겸 총리 “우리 모두는 오월광주에 빛진 사람들”

문 대통령, SNS로 진상규명 강조



관련기사 3·6·7·16·20면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엄수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화해와 용서는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빛진 사람들”이라며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광주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당시 가장 먼저 병상을 내주고 도움을 준 점을 언급하며 “오월 정신”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고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졌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오월 광주와 ‘백시운전사’의 기자 워렌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날은 여야 지도부와 참석자 전원에게 일어났다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함께 제창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의원은 이날 오전 망월동 민주민주열사 묘역(5·18 구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용진 의원이 기념식이 끝난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주 동구청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광주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한 뒤 뒤늦게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기념식장 입구 민주외문 앞에서는 여순사건유족회, 5·18 임의단체,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등이 각각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국민의힘 해체 및 대학생 연행자 석방,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가족·친구 잃어도 함께 싸우는 것이 민주화의 길”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5·18 묘지 찾은 미얀마인들 만나서로 “힘 내라” 격려하며 눈물 정세균 전 총리 “미얀마 지원해야”

“견딜 수 없는 아픔일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함께 싸우는 겁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5월 18일,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다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81) 여사가 광주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외치고있는 미얀마인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오전 ‘몽지’라고 불리는 미얀마 전통복장과 ‘5·18’이라고 적힌 목걸이를 목에 건 미얀마인 6명이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로 들어섰다. 묘역(38)씨와 전남대 유학생 르윈(가명·26)씨 등 이들 미얀마인 6명은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쓰러져간 열사들을 기리고자 묘지를 찾았다.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민주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을 찾은 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경건함이 묻어났다.

묘역에 들어선 이들은 오종렬·정광훈 등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던 중, 우연히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를 만났다.

미얀마인들이 민주열사들을 참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배 여사는 이들과 만나 “나만 큼이나 아픈 사람들이 여길 왔다. 여기 와있는 미얀마인들의 가족들이 격려된다”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이겠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죽어서도 함께 싸우는 것이니 힘을 내라”며 격려하고 오열했다. 배 여사가 이들에게 미얀마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미얀마에서 투쟁중인 시민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건네자 전남대 유학생 르윈씨는 잠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민주열사묘역을 찾은 미얀마인들과 정세균(왼쪽에서 네번째) 전 국무총리·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왼쪽에서 두번째) 여사 등이 참배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르윈씨는 “할머니처럼 현재 미얀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숨진 아들 딸들을 둔 수많은 어머니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저 또한 지금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알지 못하거나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미얀마는 군부쿠데타 이후 800여 명의 시민이 숨지고, 군부에 대응하다 구금된 시민만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묘역에서는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미얀마도 광주처럼 끝까지 싸워 민주화를 이뤄내고, 지금까지 숨진 국민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처럼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르윈씨는 “미얀마는 지금 1980년 광주 같은 상황이다. 오늘 묘역을 둘러보니, 너무나 뜻 깊고 광주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군부독재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얀마인들의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미얀마인들과 만나 과거 아웅산수치 여사와의 인연과 미얀마의 항구도시 양곤을 방문했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며, 현재 미얀마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격려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전 총리는 “미얀마에서 희생된 국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과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응원하고 힘이 돼준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미얀마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격려하고 성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얀마 민주주의가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도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